

예배 순서

예배의 부름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이 즐겁고 희망찬 날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 같 이**
조상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설 감사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목 도 **시 118:1(말씀을 인도자가 낭독)** **인 도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다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송가 563장

찬 송 **1절**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다 같 이**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2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다 같 이**
4절 세상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날 친국 가게 하소서
후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성 시 교 독 **새 해(2)** **다 같 이**

인도자 :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회 중 :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인도자 :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회 중 :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인도자 :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회 중 :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인도자 :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회 중 :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인도자 :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다같이 :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대 표 기 도 **가 족 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맞이해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이라는 사랑의 공동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는
가정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서로간의 이해와 희생을 통해 화목하며,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질서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마태복음 18:18~20** **인 도 자**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 씀 **감사가 회복되는 가정** **인 도 자**

17세기의 시인인 조지 허버트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은
주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정말로 많은 것을 저에게 베푸셨지만 딱 한 가지 더,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조지 허버트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
다는 겸손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또 감사에 대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를 아는가? 그것은 그동안 받은 감사의 개수를 세는 일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정말로 너무나 많지만 정작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잊고 산다는 마
냥 웃을 수만은 없는 속담입니다. 받은 축복을 세다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도록
풍성한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미 셀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고 족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영원에 비하면 너무 짧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감사만
하면서 살아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설 명절은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
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복된 날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살다보면 어려운 때가 꼭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기
도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거나 크게 낙심하며 술로 지새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놀라운 은혜의 수
단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십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함께하는 가정이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19절의 중요한 핵심은 ‘합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는 가족을 주셨습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은 마음이 나누어지면 약
해집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만 인간은 언제나 분리되어 하고, 그 말과 행동은
분열은 조장하는 것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갈 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가정이 이해
와 용서로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길 소망합니다.

셋째, 주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20절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말씀은 바로 임마누엘의 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왔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때로는 낙심하며 좌절하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여기까
지 온 것입니다. 사람의 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참된 안식과 도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기 도 인 도 자

하나님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 송	1절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다 같 이
	2절	아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 기 도 문 다 같 이

예배 후 교제 (새해 인사 및 덕담 나누기, 가족놀이)

설날 감사예배 지침

정월 초하루인 설은 '원단'(元旦), '세수'(歲首), '연수'(年首)라고도 부르며, 한자로는 '신일'(愼日)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근신하여 경거망동을 삼간다."는 뜻이다. 묵은 1년은 지나가고 설날을 기점으로 새로운 1년이 시작되는데, 1년의 운수는 그 첫날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던 탓이다. 설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미리 마련해 둔 새 옷으로 갈아입는데, 이 새 옷을 설빔이라고 한다. 아침에는 가족 및 친척들이 모여들어 조상의 은덕에 감사를 드리고, 어른들께 순서를 따져 세배를 드린 후에 떡국(歲饌)을 먹는 다. 아이들에게는 세뱃돈을 주며 덕담을 나누고, 가족 간의 우애를 돈독히 한다.

- 지침

- 1) 가족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둘러앉는다.
- 2) 가족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 3) 가족 가운데 어른이 예배를 인도하거나 말씀을 전하되, 서로 순서를 나누어서 참여하는 것도 좋다.

2021년

설날 감사 가족 예배 순서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한교회